

# 이상혁 31위서 시작, 1위로 마무리

## 월드랭킹 1위로 시즌 마감

도쿄올림픽이 인생 변곡점  
 “매 경기마다 최선 다했다”  
 실외·실내 세계선수권 등  
 주요대회서 높은 포인트 쌓아  
 2위에 탬베리·3위는 바심

남자 높이뛰기 월드랭킹 9월 13일 기준		
1	이상혁 (1996년생)	대한민국
2	장마르코 탬베리 (1992)	이탈리아
3	무타즈 에사 바심 (1991)	카타르
4	장고 로베르 (1992)	캐나다
5	안드리 프로첸코 (1998)	우크라이나

에서 무타즈 에사 바심(31·카타르)이 2m37을 넘기 전까지 실내외 통합 세계 1위(2m36·2월 6일 체코 후스토페체 실내 대회)를 지켰다.  
 바심이 2m37을 넘으면서 이상혁은 ‘2022시즌 기록 순위’에서 2위로 밀렸다.  
 하지만 대회별 성적을 포인트로 환산한 ‘월드랭킹’ 부문에서는 1위 자리를 지키며 ‘최근 12개월’ 동안 가장 꾸준하게, 뛰어난 성적을 낸 점수로 인정받았다.  
 세계육상연맹은 12개월 동안 경기 결과를 점수화해서 월드랭킹을 정한다. 기록과 순위를 점수화해 합산하는데,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에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남자 높이뛰기는 최근 12개월 동안 치른 경기 중 해당 선수가 높은 포인트를 얻은 5개 대회의 평균 점수로 월드랭킹을 정한다.  
 이상혁은 2022 유진 실외 세계선수권 결선(2m

35로 2위·1534점), 2022 베오그라드 세계실내선수권 결선(2m34로 우승·1415점), 도하 다이아몬드 리그 개막전(2m33으로 우승·1406점), 모나코 다이아몬드리그(2m30으로 2위·1349점), 반스카 비스트리차 실내대회(2m35로 우승·1324)가 최근 12개월 동안 ‘높은 포인트를 얻은 5개 대회’로 선택됐고, 평균 1405점을 기록했다.  
 2021년 9월부터 월드랭킹 1위를 지키다가 올해 7월 말 이상혁에게 자리를 내준 장마르코 탬베리(30·이탈리아)가 1383점으로 2위, 바심이 1375점으로 3위에 올랐다.  
 이상혁은 “월드랭킹 1위에 올라선 것만으로도 기분 좋았는데, 1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돼 기쁘다”며 “평균 기록이 좋아야 월드랭킹 1위를 유지할 수 있다. 정말 매 경기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노력과 최선, 두 가지 덕에 올해를 월드랭킹 1위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2022년을 월드랭킹 1위로 마친 이상혁은 2023 시즌도 월드랭킹 1위의 완장을 차고 시작한다.  
 이상혁은 “내년에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가 되겠다”고 월드랭킹 1위 수성 의지를 드러냈다.  
 그 전에 10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출전해 팬 서비스를 한다. /연합뉴스



전남체육중 수영선수단.

<전남도체육회 제공>

## 전남 수영 꿈나무들 회장배 은 4·동 1

전남체육 이뜻별·양윤지, 여수한려초 국성원 등 활약

전남 수영 꿈나무들이 대한수영연맹회장배에서 활약했다.  
 전남수영연맹(회장 황의준)에 따르면 이뜻별·양윤지(이상 전남체육중), 여수한려초등학교 국성원이 최근 울산시에서 열린 제71회 회장배 전국 수영대회에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이뜻별은 남자중학부 배영 100m 예선전에서 1분02초79로 결승전 진출했다. 이어 결승전에서는 1분00초67 기록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뜻별은 배영 50m에도 출전해 27초72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양윤지는 여자중 개인혼영 200m에서 2분 22초 69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따냈다. 이로써 전남체육중학교는 총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여수한려초등학교 국성원은 남자초등부 자유형 200m에서 2분10초33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자유형 400m에서도 4분36초94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황의준 전남수영연맹 회장은 “전남 수영 꿈나무 선수들이 한국체육을 이끌어갈 재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 전국체전 광주선수단 결단식 “고향 명예 드높이겠다”

광주시체육회는 21일 빛고을체육관에서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광주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이귀순 광주시의회 부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등 주요 기관장과 종목단체 관계자 등 인원 및 선수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여자 양궁팀을 창단할 예정인 송중욱 광주은행장과 여자 검도팀을 운영하고 있는 탑솔라(주) 오형석 회장 등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광주 선수단 1549명은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펼쳐지는 전국체전에 참가한다. 육상 등 총 48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이번체전에는 올림픽사상 최초 메달리스트 근대5종 전웅태,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 100m 한국기록 보유자 김국영, 아시아계임 금메달리스트 100m허들 정혜림, 여자자유도 이혜경, 펜싱 강영미 등이 출전한다.  
 안산은 2관왕에 도전한다. 전웅태 역시 개인전 금메달은 물론 단체전에서도 메달 후보다.  
 모일환(광주시청)은 400m 3연패에 도전한다. 100m 한국신기록 보유자인 김국영(광주시청)도 무난히 금메달을 따낼 것으로 전망된다.  
 자전거 이주미(국민체육진흥공단)도 도로개인독주에서 전국체전 3연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핀수영의 다크호스 양현치(광주체고 2년)는 2



오는 10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광주시 선수단이 결단식을 열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연패와 2관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핀수영 윤아현(광주시체육회)도 표면 800m에 출전해 4연패에 도전한다.  
 투기종목에서도 선전을 기대된다.  
 여자자유도 국가대표 이혜경(광주도시설도공사)은 광주에 첫 금메달을 안겨줄 후보로 꼽힌다.  
 여자펜싱 강영미, 최은숙(이상 서구청)은 예베

단체전에 출전해 메달을 바라보고 있고, 다이빙 이재경과 정다연(이상 광주시체육회)도 메달 사냥에 나선다. 올해 연고협약을 맺고 첫 출전하는 OK금융그룹 럭비단도 메달이 예상된다.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은 “선수 여러분의 선전을 기원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국체전 유도 먼저 진행...축구 등 5개 종목 사전경기

10월 열리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을 앞두고 21일 대회 사전 경기로 유도 종목 경기가 치러졌다.  
 울산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문수체육관에서

전국체전 유도 경기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유도는 2024년 파리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2022 세계유도선수권대회’(10월 6~13일)와 전국체전 일정이 중복됨에 따라 사전 경기로 치러지

게 됐다. 이번 전국체전 사전 경기는 유도를 시작으로 펜싱(9월 29일), 배드민턴(30일), 사격과 축구(10월 6일) 등 총 5개 종목이 진행된다.  
 제103회 전국체전은 10월 7~13일 울산에서 열린다. 약 3만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49개(정식 46개, 시범 3개) 종목에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연합뉴스

## 한국 여자농구 월드컵서 12년 만에 첫승 도전

오늘 중국과 1차전...정선민 감독 “높이 열세에 달리는 농구 펼칠 것”

한국 여자농구 대표팀이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첫승 도전에 나선다.  
 정선민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2일 호주 시드니에서 개막하는 FIBA 여자 월드컵에 출전한다.  
 12개 나라가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 FIBA 랭킹 13위 한국은 미국(1위), 벨기에(5위), 중국(7위), 푸에르토리코(17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26위)와 함께 A조에 편성됐다.  
 B조는 개최국 호주(3위)를 비롯해 캐나다(4위), 프랑스(6위), 일본(8위), 세르비아(10위), 말리(37위)로 구성됐다.  
 조 4위까지 8강에 올라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정한다.  
 한국 여자농구는 2010년 월드컵에서 8강에 오른 이후 2014년(13위)과 2018년(14위) 대회에서는 모두 3전 전패를 기록했다.  
 참가국 수가 16개국에서 12개국으로 줄어든 이번 대회에서 승리를 따내면 12년 만에 월드컵 본선 승리가 된다.  
 우리나라는 22일 오후 4시 30분(한국시간) 중국과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지난해 도쿄올림픽에서 스페인, 세르비아 등 유럽 강팀들을 상대로 69-73, 61-65로 접전을 벌였고, 올해 2월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는 브라질을 76-74로 꺾고 월드컵 본선 16호 연속 진출을 달성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는 대표팀 전력의 핵심인 박지수(KB)가 공황 장애 증세로 대표팀에서 빠졌고, 배혜운(삼성생명)과 최이샘(우리은행)도 부



여자농구 월드컵을 앞두고 21일 포즈를 취한 한국 대표팀 주장 김단비(오른쪽)와 중국 대표팀 주장 양리웨이. /연합뉴스

상으로 제외됐다.  
 FIBA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파워랭킹에서 한국은 말리에만 앞선 11위에 머물렀다.  
 골밑 ‘원투 펀치’인 박지수와 배혜운이 모두 빠지면서 높이에서 큰 열세를 떠안은 한국은 12명 평균 신장이 178cm로 1차전 상대인 중국의 186cm에 비해 8cm가 작다.  
 중국은 키 200cm 이상 2명을 포함해 190cm 이상이 5명이나 되지만 우리나라는 185cm인 박지현(우리은행)과 김소담(KB)이 최장신이다.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2019년 11월 올림픽 예선에서 81-80으로 이겼으나, 이후 두 차례 맞대결에서는 60-100, 69-93으로 크게 졌다.  
 17일 출국한 정선민 대표팀 감독은 “높이 열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체력과 스피드를 앞세운 달리는 농구를 펼쳐 보여겠다”며 “좋은 과정을 통해 한국 여자농구의 장점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회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공조2: 인터내셔널  
 2관 공조2: 인터내셔널  
 3관 공조2: 인터내셔널, 극장판 엄마 까투리: 도시로 간 까투리 가족  
 4관 누대사냥  
 5관 애프터: 에버 해피  
 6관 공조2: 인터내셔널, 블랙폰  
 9관 누대사냥, 썬더버드  
 프린세스 아야, 헛트, 블랙폰,  
 7관 싸캐틀, 한산: 응의 출현, 아이의 노랫소리를 들려줘  
 8관 싸캐틀, 육사오(6/45)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 11시 음악산책  
 육망과 고독의 자화상, 뉴욕  
 일시: 2022. 9. 26.(월) 11:00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235

광주시립합창단 제190회 정기연주회  
 가을저편  
 일시: 2022. 10. 12.(수) 19:30  
 장소: 빛고을시민회관  
 문의: 062-613-8245